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영자 '전지적 참견 시점'서 명MC 진행 명품 증명

〈MBC 예능프로그램〉

서울예술대 연극과를 졸업하고 1985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이영자(본명 이유미)는 뛰어난 진행 능력으로 클럽과 음식점 등에 스카우트돼 1980년대 말부터 밤무대 MC로 활약해 이름을 날렸다.

1990년대 초반, 개그맨 전유성은 개그계에 새 바람을 일으킨 신선한 인물을 찾고 있었다. 밤낮으로 밤무대와 소극장들을 돌아다니다 이영자를 만났다.

그렇게 발탁된 후 이영자라는 예명으로 1991년 MBC의 개그 콘테스트로 연예계에 입문했다. 맛깔스러운 개그를 선보이며 데뷔 2년 만인 1993년 백상예술대상 여자 코미디 연기상을 수상했다.

1996년 대한민국연예예술상 희극인상을 받는 등 1990년대를 대표하는 개그우먼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1996년 SBS '기쁜 우리 토요일'의 '영자의 전성시대'와 1997년 SBS '아이러브 코미디'의 '여군 미스리' 코너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다.



2000년대부터는 개그프로그램보다 MC와 뮤지컬 등에 집중했다. 하지만 2001년 다이어트 광고 파문으로 나라으로 떨어져 방송계에서 모습을 감췄다. 당시 이영자는 30kg 체중을 감량하고 다이어트 관련 상품과 다이어트 비디오투를 홍보했다. 하지만 살이 급격히 빠진 이유가 다이어트가 아닌 지방 흡입 수술 영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중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자숙의 시간을 보낸 뒤 어렵사리 케이블 프로그램과 파일럿 프로그램에 복귀했지

만 저조한 시청률과 프로그램 폐지, 진행자 교체 등 여러 부침을 겪었다.

7전 8기라는 말이 있듯이 곳곳하게 활동을 이어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방영한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MC를 맡아 녹슬지 않은 입담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진행자 자리에 올랐다.

이외에도 tvN '현장토크쇼 택시' JTBC '랜선라이프', MBC '전지적 참견 시점', KBS2 '볼빨간 사춘기' 등에서 진행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덕분에 2018년 여성방송인 최초로 MBC 방송연예대상과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 한 해 동시에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신상출시 편스토랑' '고민 해결 리얼리티-인터뷰게임' '언니한텐 말해도 돼' '돈줄내려 왔습니다' '칼의 전쟁' '신박한정리2: 절박한정리' 등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이어갔다.

현재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 iHQ '돈줄내려 왔습니다'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 중이다. 그중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의 활약이 유독 돋보인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매니저들의 거침없는 제보로 스타들의 일상을 담아낸 관찰 리얼리티 예능으로 대히 우리가 알지 못하던 스타의 반전 일상을 공개해 시청자에게 감동, 재미, 웃음을 선사한다. 매니저들과의 케미뿐만 아니라 참견인들 간의 케미 등 주변 사람과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말 예능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이영자가 왜 명MC로 불리는지 증명했다. 22일 방송된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특별편 '마성의 남자' 편이 펼쳐졌다.

이영자는 26일 개봉 영화 조인성, 고민시 등이 있는 '밀수' 팀을 화로회 파티에 초청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조인성이 등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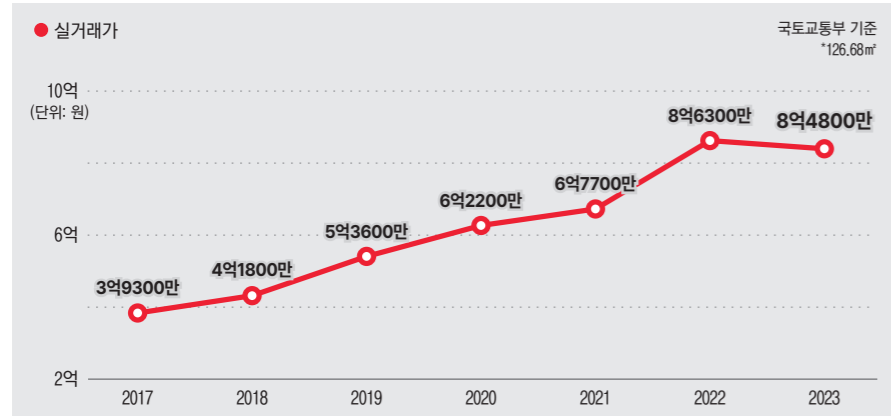
이영자와 포옹하고 서로 등을 강하게 두드리며 반가운 마음을 표현했다. 함께 출연한 흥현희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으며 "아들 대하는 엄마 같다"라고 말했다고 이영자는 "진짜 조카 같다"며 조인성과 만남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대화가 끊겨 어색해질 무렵 이영자는 고민시에게 질문을 던졌다. 흥현희는 "답 길게 해달라. 답 하는 동안 음식 먹게"라고 말했다. 눈치 빠른 이영자가 긴 답변을 유도하자 흥은이는 "저게 명MC 스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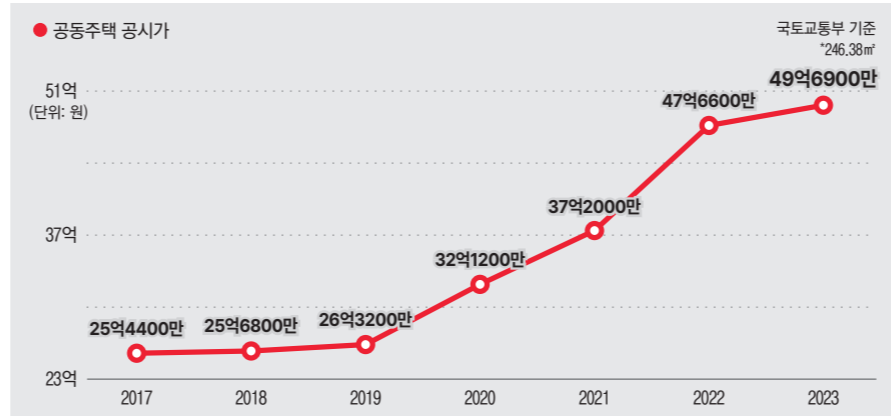
라며 감탄했다. '분위기 메이커' 이영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H아파트(사진) 한 호실을 2016년 5월 12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실 규모는 방 2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있고 공급면적 87.56㎡(약 26.48평), 전용면적 57.74㎡(약 17.46평), 초과 발코니 1.96㎡(약 0.59평) 등이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32억 원 정도로 7년 만에 약 20억 원의 차익을 보고 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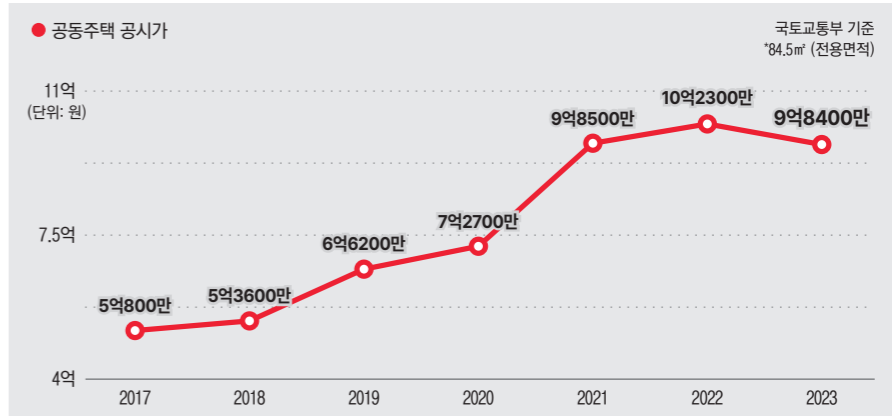
단독주택(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리하우스(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승우

현축구선수



수원FC로 이적해 등지를 틀었다. 2022시즌 36경기에 출장해 14골 3도움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올 시즌에는 27일 기준 21경기 출전, 3골, 2도움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기록이지만 날카로운 슈팅력은 일품이다.



박윤정

현에스모드서울 대표이사



박윤정 에스모드서울 대표이사는 이화여대 의류지물학과를 졸업하고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들어가 10년간 경력을 쌓은 뒤 1960년대 중반 뉴욕 메이어 패션학교에 입학해 실무를 익혔다. 귀국해 1966년 서울 중구 충무로에 개인 의상실 '미스박 테일러'를 열고 김지미, 정혜선, 유지인, 금보라 등 유명 배우의 옷을 디자인해 이름을 날렸다. 또 육영수 여사와 이희호 여사 등 영부인 의상까지 제작할 정도로 인정받았다. 1989년 프랑스 파리의 유명 디자인 스텐 에스모드의 서울 본교를 직접 세우 이사장을 맡았다.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프랑스 문화예술공



이의정

현배우



이의정은 1989년 MBC 유아교육 프로그램 '뽀뽀뽀'로 데뷔해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세친구'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특히 '남자 셋 여자 셋'에 번개머리를 하고 출연해 걱정 하나 없는 유패하고 발랄한 캐릭터로 사랑받았으며 '번개머리 소녀'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외에도 '사랑이 꽃피는 교실'(1994~1996), '사랑은 아무나 하나'(2000), '지금은 연애중'(2002), '위풍당당 그녀'(2003), '귀여운 여인'(2003~2004) 등에 출연했다. 2006년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검진 갔다가 뇌종양 진단을 받아 긴 투병기에 들어갔다. 또 고관절 괴사 후유증으로 인공 관절 수술 후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상봉·금천·봉천·상도 건축계획안 통과... 총 2248가구 공급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7 재개발 사업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주택 건설사업 △봉천1-1구역 재건축 사업 △상도동 장승배기역 역세권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251가구 포함 총 2248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특히 이번 건축심의회에서 도시 경관을 고려한 아파트 층수·높이 조정, 단지 중앙에 배치된 주차장 출입구 이동, 어린이 집·실내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면적 추가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유도했다.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상봉7구역'은 동네 경관을 모두 막고 있었던 43층 5개동으로 계획된 기존 설계안을 49층 4개동 타워형 공동주택 841가구(분양 719가구·공공 122가구)로 변경토록 유도했다.



상봉7구역 재개발 투시도.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6-3번지 일원에 있는 '금천 기아자동차부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99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 중 35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건축위원회를 통해 당초 단지 중앙에 배

치됐던 차량 진출입로가 단지 외곽으로 이동해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봉천 1-1구역'은 지하 4층~지상 28층·총 807가구(분양 740가구·공공 67가구)의 아파트

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당초 계획된 10개동이 8개동으로 조정돼 외부 공용면적이 넓어지고 어린이집 등 주민편의시설 면적이 92㎡ 추가됐다.

건축심의를 통해 기존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당곡길 가로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고 주민편의 시설 동선 개선과 추가 면적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장승배기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이뤄지는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에는 301가구·상도동 274가구·공동주택 27가구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입주만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회화시설을 설치해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보강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쾌적한 주택과 주거환경, 혁신 디자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창의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한남더힐 올해 4건 거래... 최고액 110억 원

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59㎡의 경우 3건이 거래됐다. 최고가는 31억 원이며 최저가는 27억 원이다. 나머지 한 건은 28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전용면적 240㎡는 1건이 110억 원에 거래됐다. 해당 타입은 지난해 5월에도 110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한남더힐은 한남동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넓혀도 부촌 아파트로 손꼽힌다. 대기업 임원, 유명 연예인 등 다수의 명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2층·32개동·전용면적 59~240㎡·총 600가구 규모다.

소형 평수부터 대형 평수까지 다양한



한남더힐 전경.

스카이다탈리DB

평형대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호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1층에 스크린골프장·수영장 등과 2층에는 카페·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돼 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수도권 전철 3호선 옥수역·6호선 한강진역이 인근에 있으며 한남대교를 통해 강남으로, 남산1호터널을 통해 도심권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주변에는 식당과 카페 등이 많고 바로 뒤 매봉산이 있어 주변환경도 쾌적하다. 청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